세계 7대 트렌드

선정 방법

➢ 최근의 세계적인 현상과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 분석 자료 등 토대로 2006년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 주요 트렌드를 선정

트렌드

정치

- 보수연합 강화 (美日)
  - → 동북아 政冷經熱 심화의 미국과 일본의 신보수주의 강화
- New Cold War 미국 Vs 중국
  - → 미국 견제 심화 경제 급성장 중국의 정치

경제

- 세계경제 우려 미국발 쓰나미
  - → 세계 경기 급락 미국 경제 침체로 고유가 등에 의한
- 물류 전쟁 동북아
  - → 쟁탈전 본격화 韓中日 물류
- 성장 원천 중동 새로운
  - → 중동 국가 성장 가속 오일머니 그룹으로

경영

- (Nano Economy) 나노경제화
  - → 시장규모를 확대 부응하면서 개별 소비자 기호에
- 디자인 경영의 핵심
  - →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의 핵심 경쟁력 디자인力이 기업과

정책과제

정부

- ❖ 美日 공조체제 강화
- ❖ 동북아 중재자 역할 수행
- ❖ 동아시아 경제 협력 증대
- ❖ 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를 통한 내수 기반 확충
- ❖ 중동지역 기업 진출 지원
- ❖ 세계 여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기업

- ❖ 수출선 다변화
- ❖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
- ❖ 중동 지역 IT, 건설 등 인프라 사업 적극 참여
- ❖ CEO의 디자인 리더십 강화
- ❖ 개별 소비자 욕구 충족 상품 개발

□ 병술년, 세계 정치·경제의 새로운 변화

- 2006년 세계 7대 트렌드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과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6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 정치, 경제, 경영 3개 부문의 7대 트렌드를 정함**

- **(정치)** 미국과 일본 정부의 신보수주의 강화로 동북아의 政冷經熱(정치적인 긴장 관계는 심화되나 경제적인 관계는 성숙한다는 의미) 현상 심화와 중국의 국제 정치 외교·경제면에서의 급성장에 의한 미국의 견제 강화로 美中 관계의 대립 양상이 심화(New Cold War)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미국 경제의 침체로 세계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는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각국의 항만 개발 경쟁으로 동북아 물류 전쟁이 격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중동 지역이 다시 각광을 받을 것임**
  -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미국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는 경우에 세계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지는 세계 경기 불황의 쓰나미 현상이 우려됨
  - **동북아 물류 전쟁:**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양산항 1단계 터미널이 2005년 11월 말 개장함에 따라 韓中日 주도의 물류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짐
  - **새로운 성장 원천, 중동:**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오일머니가 급증하여 중동 지역 내 개발 수요가 크게 증대할 전망임

- **(경영) IT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소비자 대상의 나노경제가 발전하고,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디자인力이 보다 강조될 것임**
  - **나노경제:**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소비자 개개인의 상품에 대한 기호의 다양화로 소비자 개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이른바 나노경제(Nano Economy)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함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力:**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각 상품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力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로 더욱 중시됨

□ 美日 보수 연합 강화[1)]

○ **(美日 보수 세력 강화) 美日 양국은 정부 내 네오콘 세력을 강화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고립 타개와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유지 등을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美日 양국내 보수 세력 강화)**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의 구현을 위해, 일본은 제3차 내각 구성에서 우익 정치인들을 내각 전면에 배치하면서 네오콘 세력들의 강화가 이루어졌음
  - **미국:** 2001년 9.11 테러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 선포 후 미국의 외교정책 전면에 미국의 '일방주의'와 '개입주의'[2)]를 통해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키고자하는 네오콘(Neo-Conservatism,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부각됨
  - **일본:** 2005년 10월 31일 단행된 코이즈미 3차 내각 구성에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 아소 타로 외무성장관 등 대표적인 우익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코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노선의 정점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찬성론자들임.[3)4)]
- **(美日 보수 연합 강화) 미일 양국은 북핵 문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고립과 미국의 영향력 견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대응 등 복잡한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문제:** 美日 양국은 북핵 해결,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정치 쟁점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한 동맹 강화가 필요함
  - **일본 고립 탈피와 미국의 영향력 견지:** 북한의 親中,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강화, 韓中 협력 심화 등으로 일본은 고립 상태이며, 미국은 이러한

---

1) 양진석,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군사세계」, 2004년 1월; 박현정, '미국의 對중국 태도 변화와 전망,' 「KIEP 세계경제초점」, 2005년 11월 22일; 日本経済新聞; 현대경제연구원 등 참조.

2) 딕 체니, 프란시스 후쿠야마, 폴 울포위츠, 도널드 럼스펠드 등 신보수주의자들이 부시 행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결성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은 항상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일방주의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음. 한편 일방주의를 배경으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집단과 그들을 지원한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무력 침공, 테러 집단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무력 저지 목적의 이라크 선제 침공 등 세계 정치에 적극 개입함(개입주의: Intervetionism)으로써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향하고 있음.

3)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무성장관은 코이즈미 일본 수상의 신사 참배를 옹호하는 자들로 그 자신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아베 관방장관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원자일 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총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소 외무성 장관은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 잇따른 정치적 망언으로 한일 양국 간 역사 갈등의 주역이 된 인물임.

4)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내적으로는 구조개혁 압력 해소, 대외적으로는 북핵 및 중국·러시아 등 잠재 적국 견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세계에서의 일본 위상 격상 등을 위한 독자적인 강경 외교 구현이라는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네오콘 세력의 강화가 필요했음.

동북아 주요국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와 영향력 유지가 필요함

-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미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고 두바이 지역 자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 전진 기지화가 필요하며, 일본은 미군 주둔으로 동북아의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군 재편성과 일본의 남진 정책:** 미군 재편성에 있어서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빌미로 남진 정책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등- 을 추진하고 있어, 美日의 전략적 움직임이 일치함

○ **(전망 및 시사점) 美日 양국 네오콘 세력들에 의한 동맹 강화는 동북아 政冷經熱[5]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네오콘 세력의 강화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은 가속화될 전망으로 한국 정부는 동북아에서의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한 실익 추구와 韓美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함**

- **(실익 도모를 위한 對美 관계 구축)** 중동 지역 정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로의 對美 관계 발전을 통해 실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지속:**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에 의해 내부 정치적 불안이 해소된 국가들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과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 정세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미국과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 구축:** 미국과는 다양한 대화 채널 확보를 통해 군사뿐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통한 실익을 추구해야 함
- **(동북아 중재자로서의 입지 구축)** 향후 동북아에서는 政冷經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한 중재자로서의 입지 구축이 필요함
  - **동북아 政冷經熱:** 동북아에서는 韓日, 中日, 日露간 역사 인식과 영토 분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나 경제 협력은 유지되는 政冷經熱이 전망됨
  - **한국은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한 중재자 입지 구축 필요:** '균형적 실용 외교'를 위해 평화 및 번영의 동북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역내 국가들과의 가치와 인식 공유 및 협조 유도를 위한 조용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할 것임

5) 정치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대립 양상을 지속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 의존 및 협력이 진전되어간다는 의미임.

□ New Cold War-중국 對 미국[6)]

○ **(美中 New Cold War 개막) 미·소간 이념 및 무력 대립 심화에 의한 냉전(Cold War)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군사·경제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잠재적 적국으로 대두되면서 美中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됨**

< 냉전(Cold War)과 신냉전(New Cold War)의 차이 >

구 분		정 치	경 제	전 략
냉전 (Cold War)	배경	• 미·소간 핵 경쟁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쿠바·아프가니스탄 등 개도국 위기로 미·소간 이념 및 무력 대립 심화		
	종결 원인	• 소련의 민주화 정권 등장 및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	• 무리한 군비확장에 의한 경제적 악화	• 군비고도화에 의한 안전보장 정책의 한계
新냉전 (New Cold War)	배경	• 중국의 정치·군사·경제면에서의 급성장 • 팍스아메리카나(일방주의)와 중국의 확장주의가 충돌		
	전략	• 미국: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Containment+Engagement) • 중국: 정치적으로는 對美 자극 자제, 경제협력 중심 세력으로 확대		

○ **(New Cold War 진행 현황) 美中 新냉전은 경제, 군사, 정치·외교 등 전면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경제: 무역마찰 가능성 확대) 미국의 방대한 對中 무역적자는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행사 등 美中간 무역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방대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05년 9월 현재까지 1,46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총액(5,536억 달러)의 25%임
  - **미국의 對中 제재:** 미 상원은 위안화 환율 개혁 시기가 늦어질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상정 등 對中 제재안 마련과 동시에 시장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경제면에서의 對中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 **(정치·외교: 미국의 對中 봉쇄전략 구체화)** 부시 정부는 이스라엘과 EU에 대한 對中 무기 금수 조치 강요, 주요 각료들의 중국의 군비 확산 비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등 對中 봉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6) 이하 논의는 James Pinkerton, 'Superpower Showdown,' *New America Foundation*, November 7, 2005; Andrew Small, 'Preventing the Next Cold War: A View from Beijing,' The Foreign Policy Centre, October 2005; ワカーズ 308号, 2005年 11月 1日; 중앙일보, 2005년 11월 19일; 현대경제연구원 등 참조.

-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 부시대통령은 2002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전략(부시독트린)'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음[7]
-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지속:** 2001년 1월 파월 국무장관은 美상원외교공청회에서 '중국은 전략적인 경쟁상대'라는 기본 전략과 '대만관계법에 근거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계속'을 표명함
- **국제회의에서의 중국의 군비 확장 견제:** 럼스펠드 美 국방장관은 2005년 6월 6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방장관회의인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해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아시아국장이 강력히 반론함
- **對中 무기 금수 조치 강화:** 미국의 압력에 의해 EU의 對中 금수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이스라엘은 對中 무기 수출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협정(2005년 6월 16일 라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시)을 맺음
- **아시아지역 군사 협력 강화:**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군사 지원, 부시대통령 몽골 방문을 통한 군사협력 방안 논의, 베트남과의 군사외교 추진, 駐日 미군 재편 협상 타결 등 對아시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전망) 미국은 컨게이지먼트(Congegement) 전략을 통해 정치·군사·외교 면에서는 일방주의를 달성하고 경제면에서는 對中 협력 체제구축을 추구하고자 할 것임. 이에 반해 중국은 안정 성장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군비 확산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간 냉전 양상이 심화될 것임**

- **(미국은 컨게이지먼트 전략 추진)** 미국은 정치·군사·외교 면에서의 對中 봉쇄(Containment)전략과 경제면에서의 對中 포용(Engagement)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 전략을 추진할 전망임
  - **정치·군사·외교 면에서의 봉쇄전략 심화:** 미국은 일본, 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와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미국의 정치·군사·외교적 일방주의를 견지하고자할 것임
  - **경제면에서는 포용전략 추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7)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은 군사력 정비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착오임을 알려주겠다. 미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이 미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군사력을 구축하고자하는 의도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있는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전략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면의 對中 포용정책은 어쩔 수 없는 전략임

- **(중국은 안정 성장 속 군비 확산)** 중국은 당분간 경제성장을 전제로 對美 관계를 풀어갈 것이나, 군비 확산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다극적 세계[8]로'라는 명목 하에 장기적인 對美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점진적인 군비 확산 추진:** 대만 합병 지속 추진, 탄도미사일 재배치, 유인우주선 개발 등 장기적인 군비 확산 추진, 對美 강경 발언을 통한 미국의 對中 전략 파악 등 전략적인 군비확산을 추구하고 있음
  -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 2005년 7월 14일 朱成虎 國防大學防務學院長(少將)은 북경 외신기자단에게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 경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할 용의가 있다'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주변국과의 연계 강화:** 미국이 이라크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국은 파키스탄과 '안전보장조약' 체결, 필리핀과 '방어협력협정' 체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 경제적인 면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의 포위망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

○ **(시사점) 한국은 韓美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韓中 관계를 심화시켜 美中 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임**

8) 현재 중국은 25개 FTA를 진행 중으로 이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 우려[9]

○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 美 경제의 내수 침체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해 무역과 자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반 경기 급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함

○ (국제 유가 급등시 미국의 내수 침체 불가피) 美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소비 및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높음

- **美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의 한계** : 재정수지 적자 문제 지속, 통화 정책의 효과 미흡 등 美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어, 경기 급랭시 美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 조절 능력 발휘가 어려운 상황임
  - **재정 정책 운용 폭의 한계:**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의 약 3.4%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상존하고 재정 운용 폭이 축소됨
  - **통화 정책의 실물 파급 경로 차단:** 12 차례에 걸친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미국으로 대량 유입된 개도국 자금의 영향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음

- **美 소비 및 건설 경기 하강 우려 대두** : 이번 경기 호황 국면을 이끌었던 개인 소비와 건설 경기가, 유가 급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점증함
  - **고유가에 따르는 구매력 축소 및 심리 위축:** 현재 개인 소비 부문은 전기대비 증가율이 1% 내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및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 유가가 1배럴 당 77달러에 달하면 미국 소비의 원천인 가계의 구매력 증가율은 제로(0)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 (東洋經濟, 2005年 10月 17日 참조.)

9) 이하 논의는 Richard N. Cooper, 'Living with Global Imbalances: A Contrarian View,'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PB05-3, November 2005; Colin I. Brandford, Jr. & Johannes F. Linn, 'Global Economic Governance at a Crossroads: Replacing the G-7 with the G-20,'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Policy Brief*, No.131; UFJ総合研究所, '拡大する中国の外貨準備と対米証券投資：投資分散が徐々に進んでいる可能性あり,' 「中国ビジネスレポート」, No.30, 2005年 8月 23日; 日経ビジネス, 2005年 10月 17日, 21日; 권오현, 정재오, 안상경, '부동산가격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건설산업동향」, 2005-08, 2005년 7월 5일;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참조.

· **주택 경기 하강 우려:** 또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2005년 3/4분기에 들어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시기의 주된 소비 여력으로 작용한 주택 시장의 호황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주택 경기의 침체는 '富의 효과'에 의한 구매력 저하를 통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음

<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

(전기대비, %)

구 분		2004	2005		
			1/4	2/4	3/4
성장	실질 GDP	4.2	3.8	3.3	3.8
소비	개인소비지출	3.9	0.9	0.8	1.0
	소비자신뢰지수	96.1	104.2	102.3	98.9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2.7	0.6	1.0	1.3
	근원물가상승률	1.8	0.6	0.5	0.4
건설경기	신규주택판매	10.8	0.5	3.0	-2.3

자료: 미 상무부, 연준, Conference Board.

주: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소비자신뢰지수는 Conference Board(1985=100) 지수.

○ **(미국발 쓰나미로 세계 대공황 우려)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소비가 위축될 경우 韓·中·日,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 감소가 예상됨

· 이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美 채권 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미국의 소비 및 주택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EU 지역도 당분간 내부적인 경제 통합 문제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10)]

<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 >

미국 주택가격 하락 폭	미국 개인소비	미국 GDP	일본 GDP
-10%	-1%p	-0.7%p	-0.3%p
-20%	-2%p	-1.5%p	-0.7%p
-30%	-3%p	-2.2%p	-1.1%p
-40%	-4%p	-2.9%p	-1.4%p
-50%	-5%p	-3.6%p	-1.8%p

자료: 日本総合研究所; 日経ビジネス (2005. 10. 17) 재인용.

○ (시사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은 고유가를 전제로 한 전사적인 위기관리 전략 수립이 급선무임

- **(정부)**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가계 부채 구조조정 촉진에 의한 소비 시스템 회복 등 내수 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함

- **(기업)** 기업은 고유가 전제 경영전략 수립, 선물 등 파생 상품의 활용으로 적절한 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수출선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

10) IMF는 2005년 EU의 경제성장률은 1.6%, 2006년은 2.1%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일 고유가 지속, 노사문제 해결 지연, EU의 정치적 현안 지연 등이 겹칠 경우 IMF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은 보일 가능성이 높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 동북아 물류 전쟁[11)]

○ **(동북아 물류 전쟁 발발) 중국의 상하이 양산항 1단계 터미널이 2005년 11월 말 개장함에 따라, 한·중·일 중심 동북아 물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중국(홍콩 포함)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2년 5,600만 TEU에서 2006년 1억 TEU로 두 배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동기간 1,200만 TEU에서 1,700만 TEU, 일본은 1,400만 TEU에서 1,800TEU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물류 전략)** 양산항 개발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2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아시아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임
  · **물류 전략 :** 중국 교통부는 '중국연해항구발전전략'을 통해 환발해권 항구군(다롄, 칭다오, 톈진), 장강삼각주 항구군(상하이, 닝보), 주강감각주 항구군(선전, 다찬만, 난샤)의 3대 연안 항구군을 2010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중국을 세계 물류 허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
  · **양산항 개발 :** 특히 2004년 1,400만 TEU를 돌파하여 홍콩, 싱가포르항에 이어 세계 3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떠오른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2010년까지 2,500만 TEU까지 늘리기 위해 상하이항 앞바다 30km 지점에 2020년까지 50개 선석규모의 양산항을 개발중임
  · **영향 :** 15m이상 수심을 갖춘 심수항의 대대적 확충은 대형 선박의 중국 직기항을 가능케 하여 그동안 중국 환적화물 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부산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일본까지 물동량 유치에 가세, 동북아 3국의 물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한국의 물류 전략)** '동북아경제중심국가구현'을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을 추진 중

11) 이하 논의는 Clarkson,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 November 2005; '해양수산부,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2001년 10월, 최재선, 우종균, 양은주, '중국 양산항 개장의 영향과 대응방안', 해양수산개발원, 2005년 10월 10일; 日本 国土工通省, http://www.mlit.go.jp/; 日本 国土工通省, 交通政策審議会港湾分科会, '経済社会の変化に対応し, 国際競争力の強化, 産業の再生, 循環型社会の構築などを通じてより良い暮らしを実現する港湾政策のあり方(中間報告),' 2002年 7月 12日;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참조.

- **물류 전략 :** 부산과 광양항의 동북아물류중심항만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 투자배분비율 조정, 국제 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막힘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동북아 철도망 구축의 7대 추진 과제를 제시
- **부산신항 육성 :** 특히 중국의 물류 허브화 전략에 맞서 한국은 우선 2010년까지 19개 선석을 비롯 총 27개 선석(5만 톤급 컨테이너선 27척 동시접안 규모)의 부산신항을 건설 중임
- **영향 :** 한국은 항만 체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물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임

- **(일본의 물류 전략)** 일본은 2002년 11월 國土交通省의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항만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 7월에 3개 슈퍼중추항만을 선정
  - **물류 전략 :** 항만비용 30% 절감, 터미널 내 선박 체류시간 1일로 단축(현재 3~4일)단축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비용 및 서비스 수준 구현이 목표
  - **슈퍼중추항만육성 :** 한신항(阪神港 : 고베항-오사카항 연합), 케이힌항(京浜港 : 도쿄항 - 요코하마항 연합), 이세만(伊勢湾 : 나고야항-요카이치항 연합)의 3개 슈퍼중추항만을 선정·육성키로 함
  - **영향 :** 일본의 슈퍼중추항만 육성 전략의 중심이 서비스와 비용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항만 전략과 상충되며, 특히 고베 대지진(1995년) 이후 물동량을 부산항에 내주었던 고베항의 재건 의지가 분명하여 향후 韓日간 물동량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응 전략) 최적의 항만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동량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최첨단 항만 개발)** 시설, 운영 등 비가격적 요인과 이용료 등 가격요인에서 경쟁 항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물동량 유치 전략)** 중국-미주 항로의 중계 거점으로써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바탕으로 대형 선사 유치 및 글로벌 부두운영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물동량 유치에 힘써야 함

□ 중동, 새로운 성장 원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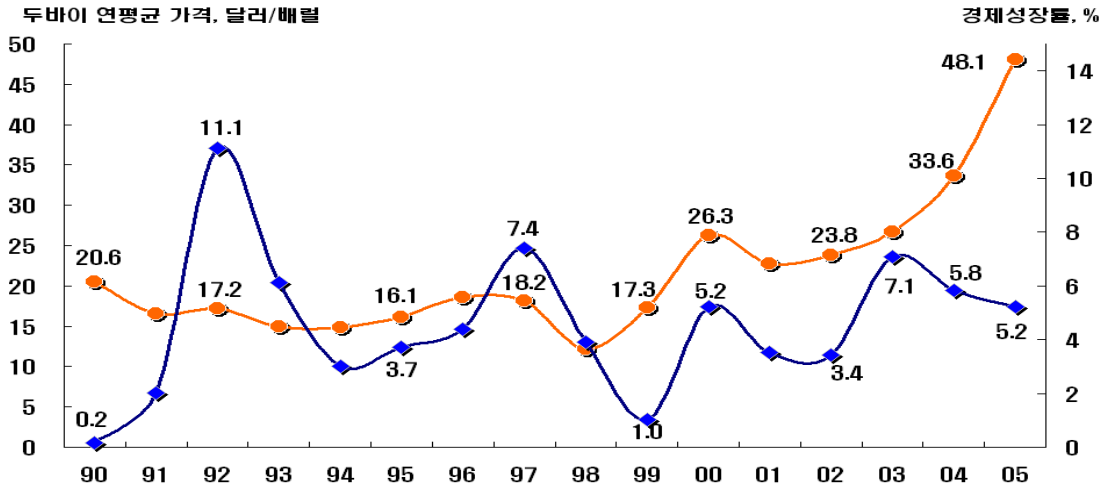
○ **(급성장하는 중동 경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유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폭 증가로 중동 산유국 경제는 2003년 이후 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2006년에도 4.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유가 급등:** 200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두바이 유가가 2005년 3/4분기까지 배럴 당 평균 48.1 달러로 2002년 23.8달러보다 두 배 이상 급상승함

- **원유 수출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쿠웨이트, 카타르, 리비아 등 6개 산유국의 석유 수출액은 2000년 1,607억 달러에서 2004년 2,353억 달러로 4년 동안 약 46.4% 증가함

- **경상수지 흑자 폭 증가:** 한편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또한 2000년 555억 달러에서 2004년 852억 달러로 4년 동안 약 53.5% 증가함

< 국제 유가 및 중동 지역 산유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IMF.
주 : 1) 중동 지역 산유국 경제성장률은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의 9개국 평균임.
2) 2005년 두바이 유가는 3/4분기까지 평균치임.

12) 이하 논의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September 2005; OPEC, *Annual Statistical Yearbook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The Economist(현대경제연구원 편역), *The World in 2006*(세계대전망), 한국경제신문, 2005년(발간예정); 한국석유공사;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참조.

○ **(전망) 고유가 지속에 의한 원유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성장세 또한 지속될 것임**

- **(고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증가)** 고유가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도 중동 산유국의 석유 수출 이익은 급증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이 지역 구매력 증가로 인해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수출 수익 증가:**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에 의하면 2006년 평균 기준유가는 Dubai 48달러, Brent 53달러, WTI 54.5달러로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금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는 2006년 걸프지역 석유 수출 수익이 3,0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2006년 예상 무역 수지 흑자 규모 2,000억 달러(IMF 전망치)의 1.5배 수준임
  - **구매력 증가로 인한 인프라 수요 급증:** 건설 수요, 정보통신 수요, 석유 및 가스 생산 설비 투자 증가 등 인프라 수요 급증 예상
  - 예컨대 중동 지역의 정보통신 부문 투자는 2005년 현재 GDP 대비 1%수준에서 향후 10년내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부즈앨런해밀턴 전망)

- **(금융 시장 성장)** 사우디의 증권거래소인 타다울(Tadawul)은 세계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주식시장으로 시장자본총액이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외에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또한 국제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시사점)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 및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은 건설 및 IT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산업 진출 전략이 필요함**

- **(정부)**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 및 정부개발원조 등을 통한 에너지 외교 및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함

- **(기업)** 기업은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IT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금융 인프라 산업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함
  - **IT 인프라 진출:** 사우디, 이란, 리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의 IT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부문 진출 전략이 시급함
  - 인터넷 인구, 핸드폰 사용자 수 등에 있어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중동국가의 수준은 한국의 많게는 1/3에서 적게는 1/20 수준으로 IT 인프라 수준이 매우 취약함
  - **금융 인프라 진출:** 중동의 급격한 금융시장 확대는 새로운 국제금융허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조기 진출에 의한 선점효과를 누려야 할 것임

□ 나노경제화[13]

○ **(의미) 나노경제(Nano Economy)란 소비자 개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뜻임**

○ **(배경) 나노경제는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에 의해 고객 지향 정보, 투명성 증대, 고객의 선택권 강화, 원가 절감 등의 요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음**

- **(고객 지향 정보) 고객의 필요에 부합한 정보, 고객들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시장의 유리상자화)** 상품 제공자 및 판매자가 제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컨텐츠, 가격, 거래상대방의 안정성, 전가되는 위험 수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고객들은 원하는데 인터넷은 이것을 유리상자와 같이 투명하게 함

- **(고객의 선택권 강화)** 고객들은 전화 교환국, 온라인 통신, 온라인 중개인, 직접 접촉 등 구매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즉각 이용 가능함

- **(원가 절감)**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상공간에서 즉시 교환할 수 있으며 공급 업자들은 정보 획득 및 마케팅 비용 등이 절감됨

- **(편리성 향상)**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고객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니고 있음

○ **(영향) 나노경제의 발전은 파레토 법칙(Pareto's Rule)의 붕괴, 롱 테일 효과(Long Tail Effect), 약자의 연합, 풀뿌리 혁명(Grassroots Revolution)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파레토 법칙[14]의 붕괴와 롱 테일 효과)** 전체 상품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붕괴되는 반면, 하위 80%의 상품이 상위 20%의 상품 매출을 압도하는 롱 테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13) 이하 논의는 신문식・장동식,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 전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3년 3월; Kaiser T., 'The Customer Shall Lead: E-Business Solutions for the New Insurance Industry,' *The Gene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Vol.27 No.1, January 2002; Institute for the Future, *2005 Ten-Year Forecast Perspective*, http://www.itft.org/; 다사카 히로시(이정환 옮김), 『e-비즈니스 혁명과 뉴미들맨』, 서울: 작가정신, 1999년; 조선일보, 2005년 11월 15일 등을 참조.

14)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도(Vilfredo Pareto)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부의 불균형 현상으로 흔히 80대20법칙이라고 불리며,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법칙임. 다른 사례로는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 차지, 20%의 조직원인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 전체 상품 중 20% 정도의 상품이 80%의 매출액 차지 등을 들 수 있음.

・매스경제(Mass Economy, 대량생산 및 판매를 특징으로 함)에서 하위 80%는 수만 많고 잘 팔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롱 테일이라고 불림
・**사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판매 순위 10만 위 이하 소량 매출 책자의 판매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악 스토어 iTunes도 하위 80%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음

- **(약자 연합과 풀뿌리 혁명)** 인터넷 광고의 한 분야인 '검색 연동형 광고(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검색 수 비례 광고료 지급 방식)'는 매스경제의 약자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연합시킬 뿐 아니라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약자 연합:** 기존 배너 광고는 비싸고 불특정 다수가 대상으로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으나, 검색 연동형 광고는 특정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화된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비용 절감, 매출 상승 등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음
  ・**풀뿌리 혁명:** 결국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비자 등 소위 오프라인 시장의 약자들은 인터넷 정보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약자를 연합시키고 이를 통해 매스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풀뿌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음

○ **(대응 전략) 나노경제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는 e-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 **(기업)**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고, 가격을 과감히 인하해야 하며, 뛰어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갖춰야 함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라:** 다양한 니치 상품군들을 갖추어 점점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야 함
  ・**가격을 과감히 낮추라:** 미국의 인터넷 음악 스토어 랩소디는 한 곡당 99센트, 79센트, 49센트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9센트짜리 곡들이 다른 가격의 곡들보다 3배나 많이 팔렸음
  ・**뛰어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갖추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이야말로 나노경제의 키워드임

- **(정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力[15]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力) 최근 디자인을 제패하는 기업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음**

- **(기업 경쟁력도 디자인이 좌우)** 최근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디자인력이 뛰어난 기업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음
  -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미국):** 1998~200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기업은 Apple Computer, 삼성이 17회로 공동 1위, 2위는 IBM으로 14회, 3위는 Microsoft로 11회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차지
  - **iF Design Award(독일):** 2002년 상품, 포장, 운송과 공공 디자인 부문에서 Simens가 19개상 수상으로 1위, IBM이 17개상 수상, Sony와 Sharp가 6개상, 삼성 외 3개 기업이 5개상을 수상하여 상위에 입상함
  - **Forbes紙 선정 100대 기업[16]:** 이들 기업 가운데 Forbes가 선정하는 100대 기업(2005년 4월 기준)에 IBM이 17위, Simens가 36위, Microsoft가 47위, 닛산이 58위, 삼성이 62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세계 주요 디자인 강국의 디자인 산업 현황 >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디자이너 수	492,000명(2000년)	123,800명(2000년)	171,700명(2000년)
디자인 사업소 수	26,436개소(1997년)	4,000개소(2001년)	9,646개소(1999년)
디자인 시장 규모	5조1,934억 엔(2000년) GDP 대비 0.48%	5조3,213억 엔(2000년) GDP 대비 2.8%	2조2,094억 엔(1995년) GDP 대비 0.44%

자료: 日本戦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会, '諸外国の事情', 2003年 2月 17日.

○ **(디자인 경영 성공 사례)** 삼성의 약진과 닛산 부활의 배경에는 디자인 경영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가 있었음

- **(삼성의 약진)** '디자인이야말로 최후의 승부처'라는 이건희 회장의 방침아래 전사 디자인 담당 조직 통합, 삼성디자인멤버십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수인재 확보, 연간 4차례에 걸친 CEO와 디자이너의 Design Decision Meeting 실시 등의 디자인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

15) 이하 논의는 日本戦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会, '諸外国の事情', 2003年 2月 17日; 経済産業省, 『デザイン政策ハンドブック2005』, 2005年 3月; 経済産業省, '戦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会報告書について', 2003年 6月 10日; 東洋経済, 2005年 10月 8日; 산업자원부,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4년 6월 18일 등을 참조.

16) Forbes 100대 기업은 매출과 순익 자산 시가 총액 등 4개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세계 2,000대일류기업(The World's 2000 Leading Companies)'로 http://www.Forbes.com/ 참조.

- **(닛산의 부활)** 닛산의 부활은 흔히들 '카를로스 곤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디자인은 무형의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부 핵심 디자이너 영입, CEO와 디자이너의 Design Decision Meeting, 美日 디자인 센터 조직 통합 등의 디자인力 강화 노력의 결실임

○ **(시사점) 정부는 디자인 산업과 육성 정책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디자인 경쟁력이야말로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디자인力 향상을 통한 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정부)** 정부는 디자인 행정 쇄신, 디자인 교육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디자인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디자인 산업과 육성 정책이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대만과 중국에는 앞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의 70~80%(2001년, 1998년에는 60~70%)에 불과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저조한 디자인 활용, 창의적 전문 디자인 부족 등 디자인 산업 관련 기반이 약하다는 점임
  - **디자인 행정 쇄신:** 이벤트성 정책을 지양하고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덕트 프로젝트나 쉐어링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 비즈니스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베스트 프렉티스를 발굴하고, 이를 국내 산업계 및 교육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 운영 필요
  - **디자인 교육 내실화:** 영국은 학교 교육과 이벤트의 연계(Designers into Schools Week), 디자인 석사 과정과 비즈니스 접목(Professional Practice, 산학 연계) 및 비즈니스 스쿨, Design Management Course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된 지도(The Surrey Institute of Design)가 있음

- **(기업) CEO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디자인 중시 풍토 조성과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 뿐 아니라 점점 다양화·세분화·개성화 되어가는 고객의 잠재적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시사점

□ **세계 7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임**

○ **위협 요인:** 美日 네오콘 강화로 인한 동북아 政冷經熱, 美中 대립 심화로 인한 간접적 피해 전망, 세계 경제의 안정성 붕괴 위험 고조로 인한 대외 성장 환경 악화, 동북아 지역 경쟁 심화 등 위협 요인이 존재함

○ **기회 요인:**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정치·외교적 중요성 확대, 중동 지역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적 성장 기반 확대, 나노경제화 진전에 따르는 국내 잠재 시장 확대 등 기회 요인 또한 존재함

2. 대응 방안

□ **기업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에서의 신사업 진출 전략 구축, CEO의 디자인 리더십 강화, 소비자 욕구 충족을 전략 구축 등의 경영 전략이 필요함**

○ **(동북아 중재자 역할 수행)** 한국 정부는 韓美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對中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 견제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 수행, 美中 대립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 회피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내·외수 기반 강화 및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선 다변화,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수출 불안에 대비하고,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으로 외수 부진 안전핀을 마련.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 등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추진

○ **(물동량 적극 유치)** 최적의 항만시스템 구축, 중국과 미주 항로 중계 입지 조건의 우수함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 추진

○ **(신시장 개척)**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에 대한 건설, IT 등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필요

○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전략)** 기업은 최적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의 개인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 **(CEO의 디자인 리더십 강화)** 디자인力의 중요성 및 디자인力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CEO의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 대책 마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